

## 광주 區경제 다시 짚 때 됐다

① 심화되는 불균형

# 동구 101만원 주민 1명당 소요 예산 복구 47만원

광주시 자치구간에 인구와 재정,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구간 경제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동구가 사활을 걸고 구간 경제조정에 나섰다. 광주시도 박광태 시장이 경제조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는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구간 경제조정 필요성과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 대안 등을 살펴본다.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북구 513명·동구 186명 복지·행정 서비스 등 격차 심각...주민만 불편

광주시청의 상무지구 이전과 전 남도청의 남악신도시 이전, 광주지역 신도시 개발은 자치구간 극심한 인구 격차를 가져왔다. 인구 격차는 또 다시 주민 복지 및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광주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초·중반부터 동구와 남구의 인구는 꾸준히 줄었다. 특히 광주의 중심이었던 동구는 1992년 17만2천명에서 2007년 4월

말 현재 11만2천여명으로, 한 달 평균 300명이 도심을 떠났다. 반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서구와 광산구는 5년 전보다 각각 8만, 13만여명이 늘었다.

특히 동구는 인구 격감(15만명 이하)으로 부구청장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되고, 의회 사무국도 과로 내려 앉았다.

인구 격차는 구별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 ■ 자치구간 불균형

구분	동구	북구	5개구 평균
면적	48.86㎢	121.80㎢	100.18㎢
인구수	112,863명	463,333명	282,132명
공무원 1인당 인구수	186명	513명	391명
환경미화원 1인당 인구수	724명	1,711명	1,407명
재정규모	1,150억원	2,191억원	1,582억원
주민 1인당 예산액	1,018,934원	472,878원	560,730원

(2007년 6월 현재)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5개구 평균이 391명이다. 하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는 513명이나 되며,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는 186명으로 평균치의 절반에, 북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미화원 1인당 인구 수도 5개구 평균 1천407명이지만 동구는 724명이다. 인구가 많은 북구는 미화원 1인당 주민 1천711명을 담당해 상대적으로 대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열악했다.

북구의 인구는 46만3천333명으로 동구(11만2천863명)보다 4배 이상 많아 산술적으로만 보면 북구 총예산은 동구보다 4배 이상 많아야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북구의 총예산은 2천191억원으

로 동구(1천150억원)의 배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민 1명에게 지출되는 구 예산은 동구가 101만 원이지만 북구는 47만원 밖에 되지 않아 인구가 많은 북구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신도시 개발과 도심공동화의 진행으로 구간 경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난 2001년 광주시는 용역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치권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마리를 못찾고 있는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주요 사립대 “학생부 1~4등급 만점 처리 방침” 교육부 “내신 무력화... 지원 중단”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내신 무력화 시도’로 간주, 예산 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 방침을 공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사립대들의 ‘내신 무시’ 언급이 나온 데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600억원)과 인문학 육성사업(300억원) 등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내용의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불(不)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과 ‘논술 강화’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주요 사립대가 이번에는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놓고 또 한번 충돌할 조짐이다.

앞서 연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은 이날 오전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학생부 성적에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도 ‘수’와 ‘우’를 만점 처리했고 수와 우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의 내신 4등급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더위 쬐는 비

13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단비가 내리자 나주시 세지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참깨를 재이삭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번 비는 14일 밤 늦게까지 내린 뒤 차츰 갯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10~30mm.

13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단비가 내리자 나주시 세지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참깨를 재이삭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번 비는 14일 밤 늦게까지 내린 뒤 차츰 갯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10~30mm.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염증 생기는 비밀 풀었다

광주과학기술원 전창덕 교수



우리 몸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포의 이동 메커니즘이 국내 과학

자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전창덕 교수는 염증 단백질인 ‘ICAM-1’이 혈관 내피 세포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혈관의 구조적 변화는 염증세포가 빠른 혈류 속에서도 염증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교수의 연구논문은 저명한 학술지인 ‘세포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6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류머티즘, 아토피와 건선 등 피부 면역질환, 염증성 장 질환 등 난치성 염증 질환의 치료법이나 약물을 개발하는 데 획기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수도권 신도시, 양극화 부추겨”

### 박준영 전남지사 성명...13개 시·도와 폐기 추진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박 지사는 13일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구분별할 정도로 추진되어 왔다”며 “이는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계층 간 양극화

를 부추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신도시는 엄청난 보상비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반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의 인구가탈과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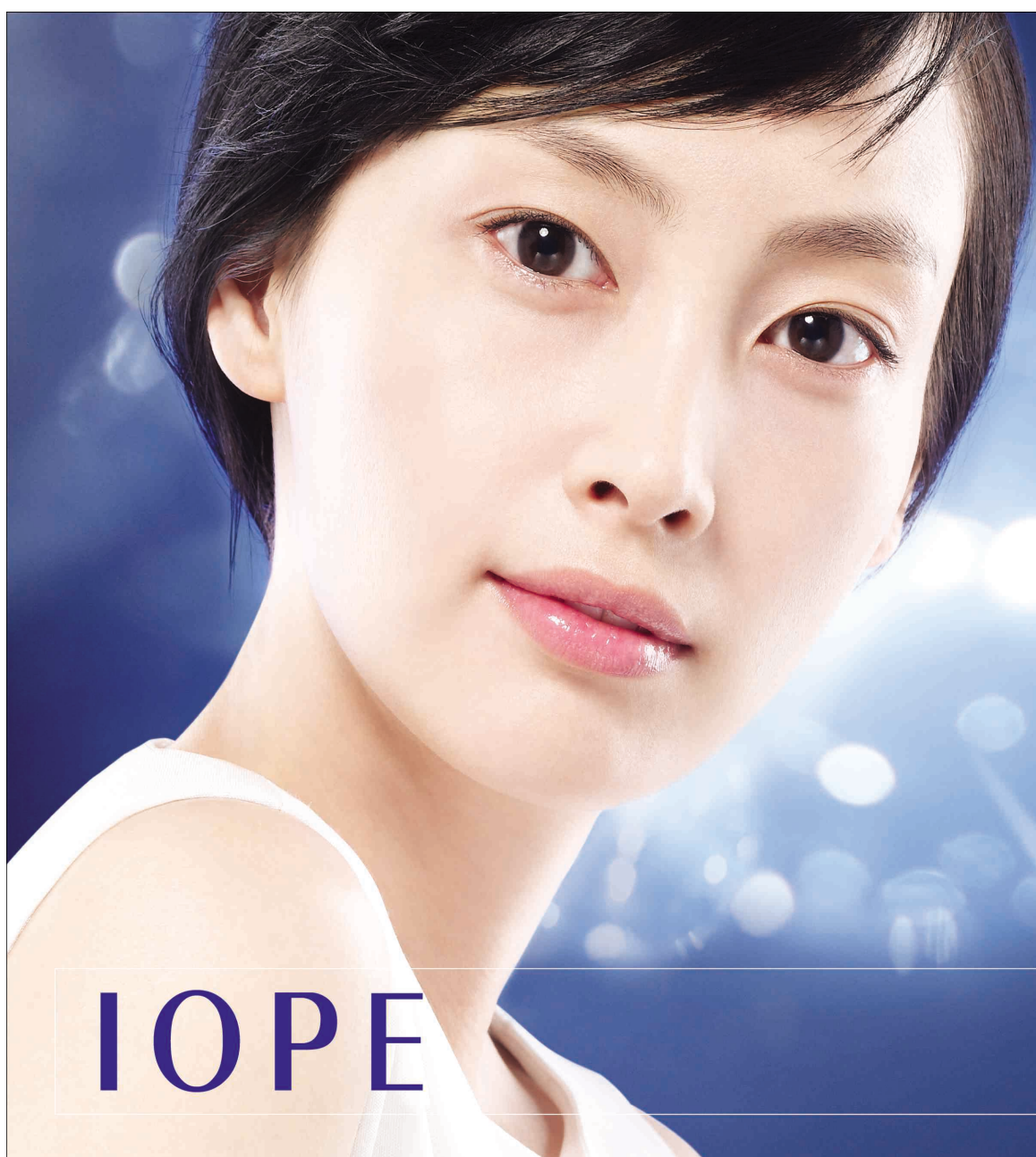
박 지사는 이와 함께 신도시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재정으로 인해 지방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재정은 한정된 상태에서 경제성만을 갖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전남과 같은 낙후지역의

SOC 건설은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는 지방의 인구를 유출시키고, SOC확충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과 복지여건의 상대적 격차를 불러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만 살찌우는 왜곡된 국가발전 모델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서울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신도시 건설 정책 폐기를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나영의 멜라닌 지수 127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오는 멜라닌 고집을 꺾다

IOPE

## 끈질긴 멜라닌 흔적에 아이오펜 화이트젠 RXC 인텐시브 에센스

끈질기게 올라오는 기미·잡티, 멜라닌의 방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기미, 잡티는 불필요하게 과다 생성된 멜라닌이 층층이 쌓여있는 상태로 걸러내지 못하는 멜라닌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큰 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겉에서 지워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므로 피부 속을 바쁘게는 딥웨이팅이 중요하다.

### 멜라닌 요오현상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화이트젠RXC 처방

보다 근원적인 화이트닝을 위해 아이오펜가 새롭게 개발한 화이트젠RXC 처방은 피부 본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미백 효능 성분을 캡슐에 담아 피부 속 깊숙한 멜라닌까지 신속하게 전달, 멜라닌의 과다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것. 강력한 햇빛에서도 하얗고 생기있는 빛을 유지하는 꽃다지 씨앗 추출물은 식물성분으로서 맑고 환한 효과를 도와준다. 동시에 강화된 수분 공급력은 착색함을 밀어내고 투명함과 화사함을 채워준다.

\*멜라닌 지수(Melanin Index)란? 색차미터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 멜라닌 정도를 측정할 수지. 낮을수록 하얀피부를 뜻함.



멜라닌 지수 정말 낮아질까?  
그녀들의 화이트닝 도전기를 확인하세요!  
지금 12명의 도전기 끝까지 멜라닌 지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펜과 함께하는 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닝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www.iope.co.kr